

류승룡 “코미디 연기는 내사명”

뮤지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로 복귀
“액션영화보다 뮤지컬영화 힘들더라”



“액션보다 힘들더라고요.”

배우 류승룡(52)에게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작업 과정에 관해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1000만 영화에 4편이나 출연했다. 안 해 본 역할이 없을 정도로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인생은 아름다워’가 어떤 영화이길래 그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한 걸까. 영화 개봉을 앞두고 류승룡을 만났다. 그는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들었다”고 했다. “현장에서 노래 녹음 해야죠, 후시 녹음 해야죠. 안무도 따로 해야 하고요. 또 이 안무를 다른 분들과 맞춰야 하고요. 처음 시도라는 장르라서 거기서 오는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최국희 감독이 연출한 ‘인생은 아름다워’

는 뮤지컬 영화다. 한국영화계는 사실상 뮤지컬 영화의 불모지다. 뮤지컬 영화가 주요 장르 중 하나로 단단히 자리잡은 할리우드와는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 최근 관객을 찾은 뮤지컬 영화 중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있고, 많은 관객이 인생 영화 꼽는 ‘라랜드’ 역시 뮤지컬 영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인생은 아름다워’ 이전 뮤지컬 영화를 이야기하려면 2006년 영화 ‘삼거리 극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역할과 장르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류승룡이지만, 그에게도 뮤지컬 영화는 도전이었다. 그는 “만약에 ‘인생은 아름다워’가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가 아니라 클래식 뮤지컬 영화였다면 입무를 못 냈을 것”이라고

했다. 류승룡의 말처럼 이번 작품은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다. 안에 걸려 오레 살지 못한다는 걸 안 아내 ‘세연’(염정아)는 무뚝뚝하기 만만 남편 ‘진봉’(류승룡)에게 인생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첫 사랑을 찾아보겠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 길을 동행하자고 한다. 그렇게 세연의 여정에 부부의 추억이 하나 둘 씩 떠오르고, 그때 두 사람이 즐겨 들었던 유행가들이 배우의 입을 통해 극장 안을 채우게 된다.

“관객 여러분이 노래방에서 불러왔던 익숙한 노래를 상황과 대사에 맞게 전달한다는 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요. 1970~90년대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서정적이고, 시 같고요.” 류승룡은 영화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는 지 인터뷰 내내 영화 속에서 불렀던 최백호의 ‘세월이 가면’, 김광진 의 ‘편지’,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유쾌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류승룡은 본격적으로 영화계로 넘어가던 2000년대 초 년별 뮤지컬 ‘난타’ 멤버로 세계 각지를 돌며 공연했다. 하지만 ‘난타’를 하지 않게 된 이후부터는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일이 없었다.

류승룡이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한 건 2004년, 그러니까 약 18년 간 노래와 춤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인생은 아름다워’를 찍기 위해 촬영 1년 전부터 노래와 안무를 연습했다. 류승룡이 더 공을 들인 거 노래였다. 보컬 트레이너와 일주일에 2~3번 만나 한 번에 2~3시간 씩 연습했다. 촬영할 때도 보컬 트레이너를 대동해 반복 연습하면서 연기했다.

“못 믿으시겠지만, 제 노래가 그렇게 연습한 노래입니다.(웃음) 예전에 뮤지컬도 해봤지만, 요즘엔 또 방법이 다르잖아요. 게다가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귀가 좋잖아요. 워낙 노래를 많이 들으시니까요. 게다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감정도 넣고, 노랫말이 가사처럼 불러야 했어요.”

많은 관객이 기대하는 것처럼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도 류승룡 특유의 코미디 연기를 볼 수 있다. 아내가 안에 걸려 남은 생이 길지 않다는 설정은 비극적이지만, 영화는 대체로 유쾌한 분위기가 속에 진행된다. 극에 생기를 불어넣는 건 역시 류승룡이다. 그는 “결국엔 가장 지향하는 연기는 코미디 연기”라고 했다. “코미디엔 웃음만 있는 게 아니죠. 희노애락이 있어요. 게다가 웃음이 점점 없어지는 요즘같은 시대에는 사명감도 느껴요. 저도 재밌게 찍고 싶고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건강한 웃음이 있어야죠.”



‘데뷔 15주년’ 카라, 7년 만에 완전체 컴백

11월 15주년 기념 앨범 발매...방송 활동도 예고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은 2세대 대표 한류 걸그룹 ‘카라(KARA)’가 7년 만에 5인 완전체로 컴백한다.

19일 소속사 알비더블유(RBW)에 따르면, 카라는 오는 11월 데뷔 15주년 기념 앨범을 발표한다.

카라의 완전체 앨범은 지난 2015년 5월 발표한 미니 7집 ‘인 러브(In Love)’ 이후 처음이다. 특히 박규리·한승연·허영지는 물론, 2014년 탈퇴했던 니콜과 강지영까지 합류해 5명의 멤버가 모두 함께 한다. 문치는 과정에서 멤버였던 고(故) 구하라(1991~2019) 몫까지 하겠다고 의기투합했다

이번 앨범은 카라의 원 소속사 DSP미디어를 인수한 RBW에서 발매된다. RBW은 “멤버들은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응원을 보내준 팬들을 위해 준비한 앨범인 만큼, 축제 처럼 행복하고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찬 앨범으로 팬들과 함께 즐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카라는 이번 데뷔 15주년 앨범 발매와 동시에 다양한 방송 출연도 예정하고 있다.

카라는 지난 2007년 3월29일 미니 1집 ‘블루밍’으로 데뷔했다. 같은 해 데뷔한 ‘소녀시대’ ‘원더걸스’와 함께 2000년대 후반을 풍미한 걸 그룹이다. 특히 일본에서 한 때 소녀시대와 함께 K팝 걸그룹의 쌍벽을 이루며 큰 인기를 누렸다. 최근함과 귀여운 이미지로 일본 대중에게 큰 호소력을 발휘했다.

데뷔해에 박규리, 한승연, 김성희, 니콜 4인조로 구성됐다. 이듬해 김성희가 탈퇴했고 구하라와 강지영이 합류하면서 5인조 꼴을 갖췄다.

2010년 8월 일본 데뷔 싱글 ‘미스터’로 오리콘 주간 차트 5위에 진입한 뒤 아시아 여성 가수 중 처음으로 ‘데뷔 싱글 오리콘 톱10 진입’

이라는 기록을 쓰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해 9월 한국어 베스트앨범 ‘카라 베스트 2007 - 2010’은 한국어 앨범으로는 처음으로 판매량 10만장을 넘기기도 했다.

2011년 4월 일본 3번째 싱글 ‘제트 코스트 러브’로 외국 여성 가수 중 처음으로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 1위에 올랐다. 2012년 7월 닷케 엔터테인먼트가 발표한 ‘2012 상반기 탤런트 파워랭킹’에서 한류스타로는 유일하게 순위권(6위)에 진입(1~5위 일본 아이돌 그룹 ‘아라시’ 다섯 멤버)하기도 했다. 2013년 1월에는 한국 여성 가수 중 처음으로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하지만 2014년 위기가 찾아왔다. 니콜과 강지영이 잇따라 팀을 탈퇴한 것이다. 카라는 그해 8월 MBC뮤직 ‘카라 프로젝트-카라 더 비기닝’을 통해 새 멤버로 허영지를 낙점하고, 재기를 노렸다. 이후 2016년 박규리, 한승연, 구하라가 카라를 발굴한 DSP미디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되면서 팀은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DSP미디어와 멤버들이 해체를 공식화한 건 아니다. 팬들은 긴 공백기로 보고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왔다. 카라 외에 1세대 아이돌 젝스키스 와 핑클을 제작한 1세대 K팝 기획사인 DSP미디어는 올해 초 ‘마마무’ 등이 소속사된 RBW에 인수되면서 컴백에 힘이 실렸고 현실이 됐다.

소녀시대가 지난달 15주년 기념 앨범 정규 7집 ‘포에버 원’을 발매하고 여전히 저력을 과시한 만큼, 카라 활동 역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이미 해체한 원더걸스의 재결성을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더걸스 리더였던 선예가 최근 솔로 데뷔하기도 했다.



국민 10명 중 6명 BTS 대체복무 찬성

하이브가 장 초반 강세다. 소속 가수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오전 9시18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5000원(3.25%) 오른 15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6% 넘게 뛰기도 했다.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BTS의 대체복무 전환과 관련해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4~15일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 답변이 60.9%, ‘반대’ 답변이 34.3%를 보였다 고 밝혔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한 응답자들 가운데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이들은 절반을 넘는 58.7%로 나타났다. 반대한 이는 37.7%였다.

이번 조사는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편입 대상에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국내 예술경연대회에서 1위 등을 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서만 3개월간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BTS처럼 해외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복무 대상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가짜 퇴마사 배우 강동원, 허준호·이솜 호흡 맞춘다

영화 ‘빙의’ 캐스팅 완료 최근 촬영 시작



배우 강동원·허준호·이솜을 한 영화에서 볼 수 있게 됐다. CJ ENM은 새 영화 ‘빙의’(가제)가 캐스팅을 완료하고 최근 본격 촬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 영화는 동명 네이버 웹툰이 원작으로, 귀신을 보지 못하지만 귀신 같은 통찰력으로 온갖 사건을 해결하는 가짜 퇴마사 ‘천박사’의 이야기를 그린다. 강동원이 천박사를 연기한다. 허

준호는 무당의 영력을 사냥하는 ‘범천’을, 이솜은 빙의 된 동생을 구하기 위해 천박사를 찾는 ‘유영’을 맡았다. 이와 함께 천박사의 파트너 ‘강도령’은 이동휘가, 천박사가 어린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황사장’은 김중수가 연기했다. ‘빙의’는 ‘헤어질 결심’(2022) ‘기생충’(2019) 등에서 조감독을 했던 김성식 감독의 연출 데뷔작이다.

강동원은 “감독님을 비롯해 모든 분과 호흡이 잘 맞아서 기분 좋게 첫 촬영을 마쳤다”며 “흥미로운 작품만큼 현장에서도 재밌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김 감독은 “스태프와 배우들 덕분에 첫 촬영을 무사히 끝냈다. 마침내 이 작품을 촬영할 수 있게 돼 감개무량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성국 24세 연하 여자친구와 올 가을 결혼

배우 최성국이 깜짝 결혼을 발표한다. 19일 종합편성채널 MBN ‘미스터리 듀엣’ 제작진에 따르면, 최성국은 내달 3일 오후 10시 40분에 방송되는 ‘미스터리 듀엣’ 9회에서는 최성국이 24세 어린 신부와 결혼 소식을 전한

다. 먼저 최성국은 촬영 내내 조금은 긴장한 듯한 것 상기된 표정으로 무대 위에 올랐다. 최성국의 과거를 모두 안다는 아주 오래된 인연의 ‘미스터리 싱어’가 등장하자 최성국은 더욱 긴장감을 드러냈다.

